

buddhanews.com

# 내 눈부터 띄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행하라

## 25면에서 계속

루마기까지 벗어나 더 덮어 주면서 어머니는 영영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은 얘깁니다.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 하니 “9대 똑바인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서 일하러 나가고요.” 하고 울거든요.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 하고서는 더 거기 거부죄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어딜 갔느냐 하면, 환상천을 들러서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을 갖는데 거기에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을 가야 천도가 돼서 다시 이리도 오든지 어떻게 될로 되든지 하는데 그 불사천에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다시 무명천에 가 보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무명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곳 관리인한테 그 어린애 영혼을 받아 가지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초가 거의 다 타 버리고 달랑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온 혼백을 넣으니까 그 어린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 공부 그만큼 되어 있어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를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 준 그 스님이 “허허” 하고 웃으며 하는 말이 이르렀습니다. “환상천으로 불사천으로 무명천으로 돌아다녀 보니 모든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살아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천에 가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거길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물을 못 건너가는구나! 많은 마구니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환상인 줄 알지 못해서 의식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 환상천을 떠나지 못하고 거길 넘어지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물질화돼서 물질, 환상으로만 살다 보면 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처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벽도 없고 지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 여기에서 다른혹성에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불이 뜨겁

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불사천을, 즉 말하자면 화랑지옥이라는 데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잘못되면 그 필필 끓는 물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니 그 필필 끓는 물이 있는 데에 빠져 죽을까 봐, 타 죽을까 봐, 데어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처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존하지 않는 그 그림자에 놀라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엇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두뇌의 구조를 보면 잠재의식으로서의 판단 기능은 바른쪽에 있고, 현재 현상세계로서의 판단 기능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해야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결어갈 수 있는지

들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만 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대승 소승이 따로 없다. 대승도 놓고 소승도 놓아라.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틀이 아니요 남북이 틀이 아니다. 여자 남자 자가 틀이 아니요 어른과 애가 틀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고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저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스승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먼저 늙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공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애쓰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먼저 늙었겠습니까? 애는 먼저 늙어서 벌써 다 시애가 돼 왔으니까요. 어른은 지금 애가 되려고 가는 길이고요. 하하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두루 틀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영령들은 수만 개가 있어도 영령일 뿐이지 그렇게 너 나 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무역무(無無亦無)’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또 마음의 자가발전소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가발전소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법이 없죠. 자가발전소에는 꺼진다 켜진다가 없기 때문에 대승 소승이 없다 이겁니다.

또 이걸 용광로로 표현을 했는데, 용광로에다 작든지 크든지 다 놓는 작업만 한다면 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재생돼서 나간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돼 나가는 거니까 잘되고 못되는 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놓는 작업만 애를 써서 해라 이겁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고 다닐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이 세상의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 들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내도 줄지도 않는다. 모습도 각각 용도에 따라서 내놓으면서 천백 억화신으로 나뉘는데, 마음으로 나뉘니까 천백 억화신으로서 어디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보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듣는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삼십이승인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서 여러분한테 응해 주시되 아프다면 약사로 나뉘어 주시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로 나뉘어 주시고 산신으로 나뉘어 주시고 지장으로 나뉘시고, 무엇이 나뉘시는 그 마음이 한군데서 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는 얘깁니다. 세균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영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 공부 못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서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명들의 마음들은,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은 나의 마음과 같이 한마음이요 몸뚱이는 내 몸뚱이와 속에 든 몸뚱이들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원통력이 있는 한마음 속이다가, 주인공 속이다가 일체를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몸뚱이로만, 이론적으로만, 망상적으로만 돌아가서 반쪽 50%인 현상세계의 판단만 하고 사는 겁니다. 대뇌의 반쪽이로만 말입니다. 항상 들락거리고 통신은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걸 막아 놓고, 의식적으로 막아 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 약업 선업이 나오는데, 때로 화가 지독하게 나게 하면 그거는 화랑지옥이요. 선하게 나왔다 약하게 나왔다 하면서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게 하는 수십억 생명들의 마음이 약업 선업으로 인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을 하느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내 지배인의 마음이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굴리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에서 있으면서 들락거리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두서없이 나오는 병, 두서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 이 모

두를 해결하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연극을 보시더라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인공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참 대법을 가지고 계신 석가세존이나 역대 조사들, 과거의 부처님들만 우러르면서 남의 나무에 과실이 잘 열려서 아주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나는 것만 보고, 내 나무에 열린 것은 우습고 내 나무에 열린 것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가꾸어 무르익혀서 만 가지 맛이 나게 한다면 남도 주고 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익은 남의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결어가야만이  
올바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한암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 제자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니까 말이야, 잘 익혀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고깃덩어리를 줄에다가 탁 묶어서 개의 눈을 가려 놓고 코에다가 대 주면서 장난들을 하는데 말이지, 코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눈은 가려졌으니 그 개는 눈 가려진 것부터 풀어야 그걸 먹을 수 있을 텐데, 자기 눈 가린 것은 모르고 그걸 벗을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냄새가 나는 그 음식만 먹으려고 이리 땡굴고 저리 땡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걸 때 먹으려고 운통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오면서 웃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습구나. 너는 우습지 않느냐?” 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하, 스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쭙죠. “큰스님, 큰스님께

서 지금 저러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우스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 눈부터 띄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그것부터 알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내 눈부터 뜨지 못한다면 그 눈을 가린 개와 같은 격이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 “같은 개 아니라 그렇느니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부터 알아야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뜨여서 모든 것을 실천공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못한다면, 실천 공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요상하고 때로는 아리송하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 계율이 있고 280계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한다면 단 5계 10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모든 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하는 말입니다. “맡겨 놓으니 숨이 떨어질 것이요, 숨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 돌이 아닐 것이요, 돌이 아니니 돌이 아니게 나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름 해서 대도(大道니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 데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한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님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거셔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대도를 이루기 만약에 누가 하라고 한다면 이견 강제성을 띄우기 때문에 망상에 꼬달려서 도저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이력할 게 뭐 있습니까.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해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마음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보죠. 내 집의 전화부터 나와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믿고 맡깁니다. 못났든 잘났든 맡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격** 1. 식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불교 각단체 및 천도제의식
  -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 수강일**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비물** 필기도구, 녹음기
- 수강료** 월 10만원
- 교육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현스님
- 문의전화** 055) 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 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점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 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률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 대폭 할인서비스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 기간 :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1개월)

##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여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 “호타 비결전서(상·하)”

- 일남이면 최고의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50,000 → 4만원(각권)

## 호타암 주지원공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순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